

번호: OP-G-004					
제 목	일개시 재가노인의 허약수준과 관련요인 The frailty level of the community elderly and related factors				
저 자 및 소 속	송미숙1), 송현종2), 임경숙3) 1)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부, 2)한국보건사회연구원, 3)경기도 광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계 Mi Sook Song1), Hyeon Jong Song2), Kyung Sook Lim3) 1)Ajou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Division of Nursing Science, 2)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3)Kyunggido Gangjushi Health Care Center, Division of Health Promotion				
분 야	의료관리 [노인보건]	발 표 자	송미숙 일반회원	발 표 형 식	구 연
<p>목적: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장기요양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어 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장기요양 요구도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검토는 매우 미흡한 상태이다. 따라서 연구자는 장기요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중재술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연구목적을 설정하였다. 1. 일개시 재가노인의 허약수준 분포를 파악한다. 2. 일개시 재가노인의 성별, 건강행태별, 질병별 허약수준의 차이를 분석한다. 3. 일개시 재가노인의 허약수준과 관련요인을 분석한다.</p> <p>방법: 지역담당제에 의한 포괄적인 보건관리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 경기도 광주시에 거주하는 재가노인을 지역별로 200명씩 총 4,200명을 표본추출하여 이 가운데 3,437명(광주시 전체 노인의 25%)의 재가노인을 지역담당간호사에 의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가운데 허약노인 개념에 포함하기 어려운 장애노인, 와상노인, 치매노인,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노인, 척추장애노인 186명은 분석과정에서 제외하여 총 3,251명을 분석자료로 선정하였다. 조사대상자의 허약수준은 동경도 노인종합연구소에서 개발한 OTASHA-KENSHIN 도구(최고 허약수준은 22점)를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그 외 건강행위와 질병상태는 연구자가 개발한 지역주민 건강정보 수집을 위한 설문도구를 이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성별, 건강행태별, 질병별 허약수준의 차이는 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허약수준과 관련요인은 다중회귀분석방법으로 검정하였다.</p> <p>결과: 1. 조사대상자의 평균연령은 71.6±6.0세로 이들의 허약수준은 남성이 7.9±4.0점, 여성이 6.1±3.5점으로 나타났다. 2. 조사대상자 중 허약수준 분포를 살펴보면, 정상노인군(0-9점)이 74.3%, 허약노인군(10-14점)이 20.4%, 장애노인군(15-22점)이 5.3%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조사대상자 중 운동을 하지 않는 군, 흡연을 하는 군, 과도한 음주를 하는 군의 허약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심한 것으로(p&lt;0.01) 나타난 반면에 아침식사 여부, 비만여부, 스트레스 과중여부에 따른 허약정도의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p&gt;0.05). 4. 조사대상자의 허약수준과 관련된 요인을 성별로 보정하여 분석한 결과, 남성의 허약정도는 연령, 아침식사 거름, 요실금, 암, 간질환, 결핵, 빈혈, 뇌졸중, 관절염이 허약수준과 관련성이 있는 요인으로 분석되었으며, 여성의 허약정도는 연령, 운동미실천, 요실금, 암, 고혈압, 뇌졸중, 당뇨병, 관절염이 허약수준과 관련성이 있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5. 조사대상자의 허약수준과 관련된 요인을 3대 주요 만성병인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별로 보정하여 분석한 결과, 고혈압 환자의 허약정도는 연령, 성별, 운동미실천, 흡연, 관절염, 암, 당뇨병, 빈혈, 뇌졸중이 허약수준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요인으로 분석되었으며(p&lt;0.05), 당뇨병 환자의 허약정도는 연령, 성별, 운동미실천, 위장병, 관절염, 암, 심장질환, 빈혈, 뇌졸중이 허약수준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p&lt;0.05). 그리고 관절염 환자의 허약정도는 연령, 운동미실천, 요실금, 당뇨병, 빈혈, 뇌졸중이 허약수준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p&lt;0.05).</p> <p>결론: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재가노인의 20.4%는 허약한 노인으로 이들을 대상으로 신체적, 인지적 기능 강화 프로그램을 조기에 중재하고, 불건강한 행위를 교정하는 한편, 각종 만성병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장기요양이 발생하기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p>					